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82



Contents

※ 2025.06.05.(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5.29.~2025.06.0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환경부,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토론회 30일 개최 (2025.05.29)1
- 자율주행 전기차 무인화와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실증 추진 (2025.05.30)1
- 음성군, 수소차·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2025.05.29)1
- 경기도, 수소 기반 온실가스 감축 기술 4자 협약 체결 (2025.05.29) 2
- 울진군, 원자력과 수소 산업 양축으로 K-에너지 중심지 도약 (2025.05.29) 2
- 강원도, 수소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며 클러스터·충전망 속속 구축 (2025.05.29) 2
- 전북자치도, 수소충전소 및 생산기지 합동 점검 실시 (2025.05.29) 3
- 수소혼합가스 기반 청정 연소 기술 개발 추진 (2025.05.29) 3
- 완주군, 수소·교육발전특구에 중점 둔 1027억원 2회 추경 편성 (2025.05.30) 3
- 수소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며 전략거점 조성 (2025.06.01) 4
- 전북도,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15개사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 (2025.06.04) 4

■ 우주

- 우주항공청,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 공개로 국내 위성개발 기업 실무 지원 (2025.05.29) 5
- 우주 기원 밝히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물꼬 (2025.05.30) 5

- 한국·이탈리아, 우주·AI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로 원팀 구성 (2025.06.01) 6
- 대전이 우주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KAIST 우주 연구센터 선정 (2025.05.29) 6
- 사천시, 우주항공 수도 정체성 담은 전용서체 개발로 브랜드 강화 (2025.05.29) 6
- 대전시, ISS 2025로 우주도시 선언하며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지 비상 (2025.05.30) .. 7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재활용 어려운 열경화성 폐플라스틱, 수소로 재탄생시키는 기술 개발 (2025.05.29) 7
- 서부발전, 세계 첫 수소 활용 온실가스 분해 시스템 개발 (2025.05.29) 8
- 가스공사, 저탄소 LNG·천연수소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도약 (2025.05.29) .. 8
- 관세청·국가보훈부 등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미달성, 현재는 0대 (2025.05.29) 8
- 수도권매립지공사, 대용량 청록수소 기술개발 협력 추진 (2025.05.29) 9
- 한국동서발전, 수소산업 중소기업에 전문인력 파견 지원 (2025.06.02) 9
- 국내연구팀, 그린수소 상용화 이끌 기술 잇따라 공개 (2025.06.04) 9
- 김해시, 액화수소산업 육성으로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 국산화 추진 (2025.05.29) ... 10

■ 우주

- 국립대구과학관, 우주항공주간 맞아 풍성한 과학문화 잔치 개최 (2025.05.29) 11
- 국립부산과학관, 우주에 나만의 메시지 보내기 개관 10주년 이벤트 (2025.06.03) 11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현대차, 디젤 트럭을 모두 수소 트럭으로 교체 추진 (2025.05.29) 12
-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 서울을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조성 (2025.05.29) 12
- 수소경제 앞세운 포스코, 정권 교체 시 방향성 우려 (2025.06.02) 12
- 그린수소 공장, 값비싼 백금 없이도 제조 가능한 소재 개발 (2025.06.02) 13
- 수출 70% 급감한 수소차, 올해 100대 달성도 어려울 듯 (2025.05.29) 13

▪ UAM

- UAM 기체 부족으로 국내 개발 올스톱, 군용 추진으로 돌파구 모색 (2025.06.02) 14

▪ 우주

- 국내 첫 민간로켓 우나스텔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유인 우주발사체 개발 탄력 (2025.05.29) 14
- 대한항공·LS일렉트릭,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술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2025.05.30) .. 15
- 베큐멕스, 반도체·우주항공 위한 아웃개싱 측정장치 개발로 민간 상용화 (2025.06.01) 15
- 김우진 이렘 대표, LNG 선박부터 의료·항공우주 특수소재까지 사업 확장 (2025.06.02) 16
- 중국, 세계 최초로 소행성 준위성 표본 수집 우주선 발사 성공 (2025.05.29) 16
- 중국, 저고도 경제 기업 5만 개 돌파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확장 (2025.06.02) 16
- 일본, 민간 우주탐사 시대 개막으로 달로 가는 기업들 등장 (2025.06.02) 17
- 중국, 텐궁 우주정거장에 방어 시스템 갖춰 우주전쟁 우려 (2025.06.02) 17
- 누리호 7차 발사 계획 불확실, 우주청이 사업 참여 기업 간담회로 지원 방안 모색 (2025.05.29) 18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환경부,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토론회 30일 개최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가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수소 이동수단 보급 활성화 토론회 개최. 수소 전기버스 보급 성과 공유와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주관으로 마련 - 1부에서는 정부 수소전기버스 보급계획 소개와 지자체,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사들의 우수사례 공유. 2부에서는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개발 현황과 전문가 토론을 통한 도입 전략 논의 - HD두산인프라코어가 배기량 11리터급 수소연소엔진을 상용차와 건설기계 용도로 개발 중. 수소연소엔진은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으나 질소산화물 배출로 후처리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은 수소전기차보다 낮음 <p>□ 자율주행 전기차 무인화와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실증 추진 (2025.05.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승인. 자율주행 전기차 주차·충전 전과정 무인화 실증 추진 -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으로 충전구역 이동 후 무선 자동충전하는 기능 실증.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유선 충전만 인정되나 무선 충전으로 이용자 편의 향상과 충전 인프라 효율적 활용 기대 -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 탑재 무인잠수정, 기아자동차가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실증. 수소연료전지는 이차전지 대비 잠항 시간 획기적 증가하고 디젤 발전기 대비 소음 적어 작전 능력 향상
지자체	<p>□ 음성군, 수소차·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음성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수소승용차 9대, 수소버스 5대에 각각 3350만원, 3억5000만원 보조금 지원 - 신청 대상은 1개월 이상 음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관내 기업, 공공기관. 전기화물차는 총 75대 지원으로 우선 지원 대상 28대, 일반 구매자 47대에 차종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371만원-2424만원 차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신청. 차량 출고·등록 기한 2개월, 사용본거지 음성군 등 조건 미충족 시 보조금 지급 취소 가능
	<p>□ 경기도, 수소 기반 온실가스 감축 기술 4자 협약 체결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가 한전, 한국서부발전, 국가철도공단과 수소 기반 SF6 감축 기술 공동 활용 4자 협약 체결. 의왕시 철도공단 부지에 조성된 SF6 분해 센터는 연간 60톤 규모 분해 처리 가능 - SF6는 절연성능 우수하나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만3900배에 달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수소를 활용해 1200도 고온에서 열분해 후 유해 물질 무해화하는 기술 적용 - 연간 60톤 분해는 이산화탄소 143만톤에 해당하며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 감축 효과. 철도공단이 폐SF6 제공하고 한전·서부발전이 분해 설비 가동, 경기도는 행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 협력
	<p>□ 울진군, 원자력과 수소 산업 양측으로 K-에너지 중심지 도약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진군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완료 시 총 10기 원전 보유로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단지 구축. 국내 전력의 9.3%를 무탄소 전력으로 생산하여 국가 에너지 산업 중추 역할 담당 - 2023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 가속화. 46만평 부지에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주기 포괄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 예정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으로 17조원 경제적 파급효과와 3만8천명 고용 창출 기대. 인구 10만, 지역생산 10조원 도시 성장 계획으로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소산업도시 부문 3년 연속 수상
<p>□ 강원도, 수소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며 클러스터·충전망 속속 구축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가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 수소산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동해~삼척 간 총 3177억원 투입하여 2028년까지 수소 저장·운송 산업 기반 구축하고 연내 착공 목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 북평 제2산업단지에 수소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 등 핵심 인프라 3개 동 조성. 전문 연구장비 41종과 기업 입주 공간으로 수소 제품 성능평가와 사업화 종합 지원 -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운영으로 수소산업 전반 역량 축적하고 춘천 수소교통복합기지 6월 말 준공 예정. 액화수소충전소 2개, 기체수소 충전소 13개 보유하며 연내 태백·속초에 추가 설치 계획
	<p>□ 전북자치도, 수소충전소 및 생산기지 합동 점검 실시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수소에너지 기반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전주, 익산, 완주 지역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기지 대상 합동 안전점검 실시.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 - 점검 대상은 기체 수소충전소 3곳, 액화 수소충전소 3곳, 완주 수소생산기지 등 총 7개소. 완주 수소생산기지는 도내 수소 공급 핵심 거점으로 주요 집중 점검 대상 - 수소 생산설비 압력·온도 관리 시스템, 저장탱크, 수소 이송 라인 등 주요 설비 작동 상태와 자동제어 시스템, 긴급 대응체계 점검. 전반적 안전관리 상태 양호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
	<p>□ 수소혼합가스 기반 청정 연소 기술 개발 추진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기업 아이티공간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혼합가스 기반 청정 연소 기술 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 인공지능 기업 주도로 수소 활용 연소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진행 - 연구개발비 125억원 지원받아 2029년 말까지 지역 연구단체와 대학, 기업 등과 사업 추진. 수소를 활용한 청정 연소 기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울산 지역 특성을 살려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증 기술 개발에 중점. 수소 혼합가스 기반 연소 기술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목표
	<p>□ 완주군, 수소·교육발전특구에 중점 둔 1027억원 2회 추경 편성 (2025.05.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완주군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액 대비 11.02% 증가한 1조342억원 규모로 편성. 수소도시 완주,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수소관련 사업과 기업유치에 중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은 투자진흥기금전출금 202억원,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40억원, 수소차 보급 15억원 등 수소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20억6000만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45억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36억원 등 교육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도 투자. 10만 완주시대 맞아 행복경제도시 완주 조성 목표
	<p>□ 수소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며 전략거점 조성 (2025.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시가 수소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하여 전략거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2023년 12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668억원 규모로 12월 착공 목표 - 지난 5월 사업부지 매입 완료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산업진흥센터, 안전성시험센터, 시스템실증센터 실시설계 공모 절차 진행. 수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과제 지원사업 시행 - 북평산업단지 내 동서발전 실증단지에 128억원 들여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회발전특구,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 지정·운영으로 수소산업 전략거점 도약 목표
	<p>□ 전북도,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15개사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 (2025.06.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 전환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 갖춘 유망 중소기업 15개사를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추진 사업 - 4월부터 모집 공고로 총 20개 기업 모집하여 전북테크노파크 주관 서류 및 대면 평가 실시. 기술력, 수소산업 연계 가능성, 사업화 전략 등 종합 평가로 15개사 선정하고 이의신청 절차 완료 - 선정 기업에는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전문가 컨설팅 등 패키지형 프로그램과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향후 산업부 공식 수소전문기업 지정받을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밀착 지원 계획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우주항공청,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 공개로 국내 위성개발 기업 실무 지원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개청 1주년을 맞아 국내 위성개발 기업들의 실무 활용을 위한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KASA 핸드북) 공개. 위성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 절차와 원칙을 담은 매뉴얼로 해외 규격 해석 어려움 해소 - 국내 중소·신생 기업의 해외 규격 해석과 관리계획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별 산출물과 진입·성공 조건을 명확히 제시.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계획과 제품보증요구조건 관련 지침과 예시를 부록에 포함하여 6월 중 제공 예정 - 우주청 누리집에서 요약본 확인 가능하며 전체본은 이메일 신청 시 제공.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위성개발 생태계 조성과 민간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교육과 찾아가는 설명회도 추진
	<p>☐ 우주 기원 밝히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들꼬 (2025.05.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SKAO)와 SKA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는 인류 최강 전파망원경 사업으로 화성 휴대폰 신호도 감지 가능한 성능 - 영국, 독일, 호주, 중국, 인도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며 한국은 프랑스, 스웨덴, 일본과 함께 참관국으로 참여. 총사업비 약 3조원 투입되는 SKA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약 345억원 분담하여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건설 - SKAO 회원국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하여 SKA 건설 및 운영에 국내 전문가 파견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산업체 조달 참여 기반 마련. 최종적으로 정회원 자격 확보 시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표권 행사 가능하며 국내 산업체 기술개발 촉진과 새로운 이윤 창출 기회 제공</p>
	<p>□ 한국·이탈리아, 우주·AI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로 원팀 구성 (2025.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대사가 이탈리아공화국 선포일 기념 인터뷰에서 항공 우주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한국과 이탈리아 협력 기회 확대 기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라는 같은 가치 공유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 - 이탈리아는 1964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제작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하는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일찌감치 앞서 나가며 많은 경험 보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과 손잡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9월 항공우주와 AI, 반도체와 바이오 등 총 7개 첨단산업 분야에 걸친 비즈니스 포럼 개최 예정. 기초과학이 발달한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분야의 강자인 한국 간 협력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이상적인 구조로 평가
지자체	<p>□ 대전이 우주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KAIST 우주 연구센터 선정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가 과기정통부 2025년도 혁신연구센터(IRC) 공모에 선정되어 대전이 우주산업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 연 50억원을 10년간 지원받는 IRC 사업으로 중장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신설 연구센터는 무인 우주정거장 구축 핵심기술과 다중 로봇 시스템 설계·협업 기술, 우주 물자 수송·회수 실증 등 차세대 우주기술 분야 선도. 대전시는 2026년부터 매년 5억원씩 총 45억원 지원으로 지역 우주기업 연계 강화 -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썬트렉아이, LIG넥스원 등 대표 우주·방산 기업과 대전시 소재 88개 우주 기업이 멤버십 형태로 참여. 산학연 협업의 모범 모델이자 기술사업화의 실질적 가교 역할 기대
	<p>□ 사천시, 우주항공 수도 정체성 담은 전용서체 개발로 브랜드 강화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시가 제1회 우주항공의 날과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전용서체 사천우주체와 사천항공체 개발. 도시브랜드 강화와 지역 고유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구현 - 사천우주체는 천·지·인과 우주에서 착안한 기하학적 조형미로 우주의 광활함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무한함을 담아낸 제목용 서체. 사천항공체는 활주로의 직선미와 비행기의 유려한 곡선에서 영감받아 속도감과 첨단 기술 이미지 전달하는 헤드라인용 서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서체 모두 한글 2780자, 라틴문자 94자, 특수문자 986자로 구성되어 윈도우용 TTF와 맥용 OTF 형식으로 제공. 시정 홍보물과 공공 디자인, 각종 행사 및 간행물에 적극 활용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 계획
	<p>□ 대전시, ISS 2025로 우주도시 선언하며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지 비상 (2025.05.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가 컨텍스페이스그룹과 손잡고 6월 3-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우주 컨퍼런스(ISS 2025) 개최. 협력을 통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전 세계 40여 개국 3000명의 우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무대 -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과 연계한 첫 국제 행사로 대전이 명실상부한 국가 우주 전략 거점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계기. 우주산업 발전 포럼, 기술 교류회, 수출상담회, 스타트업 피칭, 우주기술 박람회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사업 성과 창출에 초점 - 핀란드 ICEYE, 독일 Exolaunch, 미국 VIASAT 등 49개국 우주기업·기관과 KAIST,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내 핵심 기관 참여. 존 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이 기조연설하며 15개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 70여 명이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 진행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재활용 어려운 열경화성 폐플라스틱, 수소로 재탄생시키는 기술 개발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순산소 연소 기반 연속식 공정을 활용해 열경화성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고품질 합성가스 생산 성공. 글로벌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30년 173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초고온에서만 분해 가능한 특성으로 매립, 소각에 의존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환경 오염 주범으로 인식. 연구진은 순산소 연소 기반 가스화 공정 개발로 공정 효율 높이고 타르 발생량을 93.4% 감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도 고열 지속 공급 체계로 연속 공정 구현하여 혼합 폐플라스틱 1kg당 수소 0.13kg 생산 능력 달성. 국내 특허 3건 등록, 해외 특허 1건 출원으로 상용화 기반 마련
	<p>□ 서부발전, 세계 첫 수소 활용 온실가스 분해 시스템 개발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서부발전이 한전, 철도공단과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를 이용한 대규모 온실가스 분해설비 개발. 경기도 의왕 실증부지에서 수소 활용 육불화황 분해 센터 준공식과 업무협약식 진행 - 준공된 육불화황 분해설비는 기존 액화석유가스 활용 기술을 고도화한 것으로 수소를 이용해 육불화황을 99% 이상 분해 가능.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육불화황 분해설비 - 2023년 3월부터 서부발전·한전·철도공단이 수소 기반 육불화황 분해 기술 개발·활용에 협력.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육불화황을 분해하는 진정한 탄소중립 기술 구현으로 국내외 탄소중립 실현 기여 목표
	<p>□ 가스공사, 저탄소 LNG·천연수소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도약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공사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로 KOGAS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저탄소 LNG 사업 추진으로 연간 29만톤 이산화탄소 감축을 장기 목표로 설정 - LNG 캐나다 사업에서 탄소저감 설비 구축으로 올해 연간 4만톤, 향후 최대 8만톤 이산화탄소 감축 예정. 이는 여의도 면적 26배 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수준 - 천연수소 개발을 위해 국내 생성 가능성 높은 지역 중심 부존 가능성 분석 연구 수행. e-메탄 제조 상용화 기술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도약 목표
	<p>□ 관세청·국가보훈부 등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미달성, 현재는 0대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국가보훈부, 농촌진흥청, 소방청 등이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 미준수. 헌법재판소는 전기·수소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아 0% 달성. 공공기관 29곳이 의무 비율 미준수로 24곳이 과태료 부과 대상 - 지자체 10곳과 공공기관 14곳 중 일부는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으나, 신규 구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임차 실적 있는 기관 626곳의 95.4%는 의무 비율 달성. 총 8059대 중 89.1%인 7181대가 전기·수소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부터 이륜차 포함, 전기·수소차 환산 비율 강화로 전기승용차 1.5대 환산에서 1대로 변경. 정부는 수소연소엔진 장착 상용차 도입 방안 검토하고 지난해 수소 전기버스 1044대 보급
	<p>□ 수도권매립지공사, 대용량 청록수소 기술개발 협력 추진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대전에서 대용량 청록수소 생산기술개발 상호협력 업무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국책연구과제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공사 포함하여 11개 공동연구기관과 3개 수혜기업 참여 -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와 도시가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산 플라즈마 기술 및 저온흡착기술 적용으로 하루 3톤 규모 청록수소 생산 목표. 생산과정 부산물인 고체탄소, 폐열 등의 활용 방안도 검토 - 청록수소는 탄화수소계 연료를 고온 열분해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리 생산하는 무탄소 수소 생산 기술. 매립가스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자원순환형 플랫폼 구축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여 방침
	<p>□ 한국동서발전, 수소산업 중소기업에 전문인력 파견 지원 (2025.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가 수소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협약식 개최. 세르파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피크 대상자 중 전문역량 보유자를 선발하여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 - 소속 임금피크 인력 5명을 선발하여 업무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수소산업 전환 추진 중인 동해·삼척 지역 유망 중소기업과 1:1 연결 완료. 약 6개월간 연구개발 과제 공모, 업무 프로세스 관리 등 실무 수행 - 동해·삼척 지역은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 등 수소 관련 국책사업 집중 지역. 경험 있는 인력을 지역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기여
	<p>□ 국내연구팀, 그린수소 상용화 이끔 기술 잇따라 공개 (2025.06.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 전혀 없는 그린수소에 대한 국내 연구진 성과 잇따름. 포스텍과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효율적 그린수소 제조 철 기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촉매 개발에 이어 생산비용 대폭 절감 핵심소재 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그린수소 생산과정에서 백금 대체 촉매 개발하여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에 게재.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개발 속도 못 내던 그린수소의 비용적 부담 해결책 제시 -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장치 기술로 백금 대신 저렴한 촉매 사용 가능하나 고온·고전류 환경 내구성 문제를 틈새 알킬 사슬 추가로 극복. 고온에서 뛰어난 이온 전도성과 100일 이상 연속 작동으로 최고 수준 달성
지방기관	<p>□ 김해시, 액화수소산업 육성으로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 국산화 추진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시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트베드 구축. 액화수소 클러스터 내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기술 국산화를 위한 실증시설 구축 계획 -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잉여전력을 고압 압축 저장 후 필요 시 공급하는 친환경 차세대 전기 저장기술. 수소 액화 과정 필수 에너지를 위한 전 단계 기술로 평가 - 한림면 신천일반산업단지에 2027년까지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하여 액화수소 클러스터 조성. 한국기계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삼성E&A 등이 공동 참여하여 내년까지 기술 개발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국립대구과학관, 우주항공주간 맞아 풍성한 과학문화 잔치 개최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구과학관이 우주항공주간과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밤하늘 및 천체 특별기획전과 예스! 키즈존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문화 축제로 꾸며져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감동 전달 -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과학관 본관 로비에서 별과 천체 사진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특별기획전 개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야외 광장에서 달성문화재단 협력 예스! 키즈존 운영으로 어린이 맞춤형 과학문화 체험 제공 - 우주항공주간 하이라이트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상설전시관 및 꿈나무과학관을 전면 무료 개방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과학 체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개방. 총 10개 체험부스 운영과 다양한 과학키트 만들기 프로그램 제공
	<p>☐ 국립부산과학관, 우주에 나만의 메시지 보내기 개관 10주년 이벤트 (2025.06.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부산과학관이 개관 10주년과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해 우주에 나만의 메시지 보내기 특별 시민참여형 이벤트 개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에 대한 메시지를 우주로 전송하는 특별한 경험 제공하여 미래 세대 꿈 응원 - 외계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나의 꿈을 주제로 손글씨, 직접 그린 그림, 사진 등 자유롭게 메시지를 작성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 접수된 메시지는 광통신 기술을 활용해 이달 셋째 주 오송시 메타스페이스 본사에서 적외선 레이저 방식으로 우주에 송출 - 송출 대상은 약 40광년 이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행성 7개와 케플러 우주망원경으로 발견한 외계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의 행성 4개 등 총 11개 행성. 메시지 선정 내용, 실제 송출 장면, 광통신 원리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20일 공식 SNS를 통해 공개 예정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차, 디젤 트럭을 모두 수소 트럭으로 교체 추진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가 상용 디젤 트럭을 수소 트럭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 검토. 2톤급 마이티와 5톤급 파비스를 수소연료전지차로 개발하여 기존 1개에서 3개 수소 트럭 모델로 확대 계획 - 프리시던스 리서치는 2030년 수소 트럭 시장이 163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연평균 성장률 41.4%에 달할 것으로 전망. 수송 부문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 차지하는 공해산업으로 친환경 전환 필요성 증대 - 현대차는 신형 넥쏘도 출시 예정으로 5분 완충, 1회 충전 700km 주행 가능. 에너지 모빌라이저 전략에 따라 5조7000억원 투자하며 토요타, 지엠과 협력으로 전방위적 공세 전개
	<p>□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 서울을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조성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성중공업이 서울에너지공사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안전기준 개발, 수소 충전설비 국산화, 청정수소발전 공동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 효성중공업은 20년간 축적한 수소충전사업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울을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 국내 수소충전시스템 시장점유율 1위 유지 - 2021년 린데와 함께 액화수소 생산 및 판매 합작법인 설립하여 전 과정 참여. 지난해 전남 광양에 첫 액화수소충전소 준공했으며 현재 전국 21개 수소충전소 건설 추진
	<p>□ 수소경제 앞세운 포스코, 정권 교체 시 방향성 우려 (2025.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홀딩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소·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깊이 관여하며 친정부 기업 이미지 굳혀. 정권 교체 가능성 높아지면서 정부 지원 기반 핵심 사업이 차기 정권 하에서 흔들릴 우려 - 장인화 회장 선임 후 수소환원제철, 이차전지 소재, 광양 중심 수소허브 구축 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정권 강조 산업정책 주도. 윤석열 대통령의 광양제철소 방문과 산업부 장관의 수소경제 핵심 파트너 지목 등 정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정권 산업 기조 변화 시 수소경제나 광물자원 관련 대규모 투자 회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 정권 교체마다 구조조정, 비리 수사 등 외풍 경험한 포스코의 구조적 취약성 재부각 가능성
대학교	<p>□ 그린수소 공장, 값비싼 백금 없이도 제조 가능한 소재 개발 (2025.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TECH 화학공학과 박태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으로 값비싼 백금 촉매 없이도 수소 생산 가능한 소재 개발. 태양광·풍력 전기로 물 분해하는 그린수소 생산에서 백금 대신 저렴한 촉매 사용 가능 -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장치 기술에서 고온·고전류 산업 환경 내구성 한계를 틈새 알킬 사슬 추가로 해결. 마치 꽉 막힌 도로에 지하차도를 뚫어 교통 원활화 하듯 이온 이동 개선 - 연구팀 개발 소재는 고온에서도 뛰어난 이온 전도성과 2000시간 이상 안정 작동, 100일 넘게 연속 작동으로 최고 수준 내구성 입증. 수소 생산 기술의 비용 장벽을 허문 성과로 산업 현장 적용 가속화 기대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기타	<p>□ 수출 70% 급감한 수소차, 올해 100대 달성도 어려울 듯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1-4월 국내 수소전기차 수출량이 18대로 전년 동기 60대 대비 70% 급감. 이 추세라면 연간 100대 수출도 어려울 전망. 내수 판매 역시 965대에 그쳐 연간 3000대 판매도 힘든 상황 - 수소차 넥쏘 출시 후 2021년 1121대로 정점을 찍었던 수출량이 지속 감소해 지난해 101대까지 하락. 내수 판매량도 2022년 1만328대 정점 후 지난해 3787대로 급감 - 부족한 충전 인프라와 수소 수급 불안, 동급 차종 대비 비싼 가격 등이 시장 외면 요인. 업계는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수소 산업 육성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강조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민간기업</p>	<p>☐ UAM 기체 부족으로 국내 개발 올스톱, 군용 추진으로 돌파구 모색 (2025.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이 참여 기업들의 기체 확보 난항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 올해 말 상용화 목표인 K-UAM 그랜드 챌린지는 2025년 K-UAM 상용화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전기 수직이착륙기 기체 설계·제조·인증에 수천억 원이 들어 성공 가능성 불투명 - SKT-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은 미국 조비에이션의 기체 공급 지연, 카카오모빌리티-버티컬 컨소시엄도 미국 아처 에비에이션으로부터 기체 확보 실패. K-UAM 컨소시엄 중 기체를 확보한 곳은 없으며 일부 기업은 기체 개발 투자를 포기 - KAI는 2027년 상반기 1호기 기체 제작 완료, 2028년 6월까지 비행시험, 2030년 실증기 개발을 목표로 국내 유일한 자체 UAM 기체 개발 추진. 업계는 민간 대신 군용 UAM 우선 추진으로 안정적 수요 확보와 기업 참여 유도 필요성 제기
<p>대학교</p>	<p>- (해당 없음)</p>
<p>해외</p>	<p>- (해당 없음)</p>
<p>기타</p>	<p>- (해당 없음)</p>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민간기업</p>	<p>☐ 국내 첫 민간로켓 우나스텔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유인 우주발사체 개발 탄력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유인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우나스텔라가 전남 고흥 자체 발사장에서 소형 발사체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 시험 발사에 성공. 지난해 11월 1차 실패 후 2차 시도에서 성과를 거두며 민간 기업 자력 국내 로켓 발사 첫 사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km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고흥군 해상 안전 설정 구역으로 낙하하며 비행 종료. 탑재체로는 항우연, 기계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충남대 연구팀들의 미세 중력시험 장치 탑재하여 우주산업 부품 국산화 사업 실증 -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는 길이 9.45m, 총 중량 2톤, 추력 5톤급 소형발사체로 케로신과 액체 산소를 연료로 사용. 향후 전기모터펌프 사이클 엔진 기반 로켓 개발로 구조 단순화와 안전성 확보하여 고도 100km 유인 우주 비행 서비스 목표
	<p data-bbox="309 741 1474 779">□ 대한항공·LS일렉트릭,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술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2025.05.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과 LS일렉트릭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DEX)에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사의 전문 기술을 결합하여 첨단 항공우주 분야 협력 강화 - 항공제조산업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항공제조산업 물류시스템 최적화, 차세대 항공기 제조·생산역량 강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 대한항공의 항공기 제조 노하우와 LS일렉트릭의 전력 솔루션 기술이 결합 -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스마트 제조 시스템과 물류 최적화를 통한 항공우주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대
	<p data-bbox="309 1352 1474 1391">□ 베큐맥스, 반도체·우주항공 위한 아웃개싱 측정장치 개발로 민간 상용화 (2025.06.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개발 전문 스타트업 베큐맥스가 반도체 및 우주항공산업을 위한 아웃개싱 측정장치 개발하고 6월 16일 정식 출범. 국제적으로 공인된 ASTM E595 표준 기반으로 TML과 CVCVM을 정확하게 측정 가능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받은 ASTM E595 시험장치 설계 및 운용기술을 적용하여 장비의 신뢰성 대폭 강화. 교차오염 없이 한번에 다수 샘플을 동시 측정하여 기존 장비 대비 측정 효율 획기적 향상 - 아웃개싱은 고온·진공 환경에서 소재에 잔류한 물질이 방출되는 현상으로 광학표면 오염·센서 성능 저하로 시스템 오작동 유발 가능. 그동안 해외 장비나 연구기관 의존했으나 이제 국내에서도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국산 테스트 솔루션을 저비용 고효율로 이용 가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김우진 이렘 대표, LNG 선박부터 의료·항공우주 특수소재까지 사업 확장 (2025.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렘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과 인증 체계를 완비하여 LNG 선박을 넘어 의료, 항공우주 등 초고사양 산업 분야까지 본격 공략 계획. 50년 이상 산업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제조·판매하며 국내외 품질 인증과 글로벌 선급 인증 다수 보유 - LNG 운반선 스테인리스 강관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0% 증가하고 연간 100% 이상 성장 기대. 조선 분야 매출 비중은 40%를 넘어설 전망이며 중소기업에서 고부가가치 대구경 후육관 제품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 스테인리스강은 극한의 고열과 압력에 견디는 내열성과 내구성, 우수한 내식성으로 우주산업 활용 확대. 스페이스X의 대형 발사체 스타십에도 기존 알루미늄 합금 대신 스테인리스강 적용되어 의료·우주항공 특수소재 시장 진출을 위한 고기능 소재 기술 개발과 인증 확보 추진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해외	<p>□ 중국, 세계 최초로 소행성 준위성 표본 수집 우주선 발사 성공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세계 최초로 준위성 표본을 수집해 가져올 우주선 텐윈 2호를 창정 3호 로켓에 실어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 성공. 2026년 7월 카모오알레와 궤도 진입 후 표본 채취하여 2027년 11월 지구 귀환 예정 - 준위성 카모오알레와는 폭 40여m의 작은 천체로 지구와 태양을 같은 주기로 공전하며 달 충돌로 떨어져 나온 천체로 추정. 표면 접촉과 고정 부착 방식을 사용해 목표 100g의 표본 채취하여 기원에 대한 해답 제공 기대 - 표본 투하 후 혜성 311P/판스타스 탐사를 위해 다시 우주로 향하여 2035년 1월 도착해 1년간 궤도 관측 진행. 성공 시 일본, 미국에 이어 소행성 표본을 가져온 세 번째 국가가 되며 중국의 단계적 행성간 탐사 계획의 두 번째 탐사선 <p>□ 중국, 저고도 경제 기업 5만 개 돌파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확장 (2025.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저고도 경제를 국가 주도로 전폭 지원하며 육성하여 관련 기업이 5만 개 돌파. 고도 1000m 이하 공역에서 드론이나 eVTOL을 이용한 도심항공교통과 물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관광응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으로 2035년 600조원 규모 성장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플이 반경 10km 지역에서 15분 내 배달 완료하는 자동 물류 시스템 구축하여 누적 배송 45만 건 돌파. 이항의 EH216-S는 조종사 없이 승객만 태우고 비행하는 2인승 자율주행 드론 택시로 1-2년 안에 상업 운행 개시 계획 - 중국 정부는 2023년 저고도 공역에서 모든 활동을 저고도 경제로 명명하고 규제 대폭 완화. 선전시는 고도 120m 이하 공역의 75%를 개방하고 내년에는 300m, 이후 600m까지 확장 예정. UAM 기술이 우주발사체나 소형 위성 운반체 개발에도 활용되어 우주산업 생태계 확장
	<p>□ 일본, 민간 우주탐사 시대 개막으로 달로 가는 기업들 등장 (2025.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우주 스타트업 아이스페이스가 6일 달 착륙을 시도하여 성공 시 아시아 민간기업 최초의 달 착륙 사례. 2023년 첫 시도는 고도 인식 오류로 실패했으나 센서와 알고리즘 개선으로 기술 정밀도를 높여 재도전 - 일본항공(JAL), 시티즌, 스키 등 주요 일본 기업들이 연료 배관설계, 착륙 구조 분석, 경량 소재 제공 등 다양한 기술 집약으로 협력. 착륙선에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장치도 탑재되어 달 자원 활용 가능성 실험하며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100억엔 조달 - 달 관련 시장이 2040년까지 누적 1700억달러(235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며 달의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 연료로 활용하면 지구 운반 대비 비용 크게 절감 가능. 중국은 2030년까지 우주강국을 목표로 2035년 유인 기지 건설 추진 중이며 미국은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2027년 유인 달 착륙 목표
	<p>□ 중국, 텐궁 우주정거장에 방어 시스템 갖춰 우주전쟁 우려 (2025.06.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우주정거장 텐궁에 고의로 접근하는 우주선 등 외부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자체 방어 시스템 탑재 계획 발표. 미확인 물체가 텐궁에 접근하면 로봇 추진기가 발사되어 해당 물체에 달라붙어 안전한 거리로 밀어내는 방식 - 쑨즈빈 중국국가우주과학센터 수석 과학자가 접근한 우주선의 의도에 따라 회피와 궤도 조정, 로봇추진기 발사로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 때로는 다른 우주선이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정찰하거나 작업을 방해할 가능성 있다고 언급 - 자칫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첫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 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거 중국은 텐궁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과 잠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했다고 2021년 12월 유엔에 보고하며 우주비행사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주장</p>
기타	<p>□ 누리호 7차 발사 계획 불확실, 우주청이 사업 참여 기업 간담회로 지원 방안 모색 (2025.0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고도화 사업 참여 기업들과 발사체 사업 발전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2027년 6차 발사 이후 추가 계획 확정되지 못하면서 산업계 기술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엔진, 구조체, 유도제어 담당 11개 기업 참석하여 6차 발사 이후 사업 공백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유지 어려움 지속 제기. 일관된 발사 수요 확보 없이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무색해질 것이라는 의견 - 기업들은 후속 발사 물량 확보를 위한 공공 발사 수요 정보 제공과 장기 발사 계약 체결 등 구체적 지원 방안 제시. 우주청은 누리호 사업에 참여하는 100여개 기업의 생산 물량 축소 어려움 인지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산업계 협력 약속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